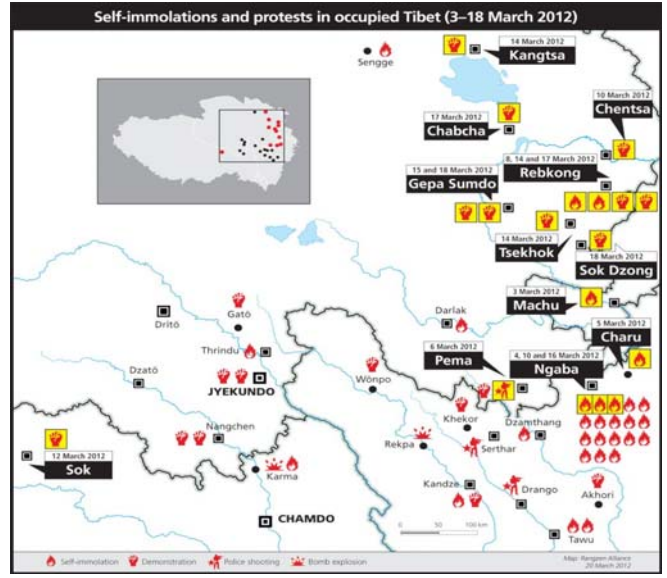


Free Tibet! Free Tibetan!

티베트는 어디에?



티베트는 중국과 인도의 사이,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에 둘러싸여 있으며 평균 고도는 약 3,900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립니다. 티베트는 1950년 중국의 침략을 받아, 현재 중국의 점령 아래에 있는 식민지입니다. 1965년 중국은 우창 (U-TSANG : 중앙 티베트) 지역만을 '시짱 자치구(TAR)'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티베트는 크게 칭하이, 간쑤, 쓰촨성 북부 지방으로 분할된 암도(AMDO) 지역과 원난성에 통합된 캄(KHAM), 그리고 현재 티베트 자치구인 우창 등 3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티베트는?

아직도 세계 많은 곳에서 '인권'은 사치스러운 가치처럼 여겨집니다. 점령된 땅 티베트 역시 마찬가지지요. 티베트인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와 환경은 계속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순조롭게 막을 내린지 3년이 넘는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중국 정부의 한족이주정책으로 티베트 지역의 한족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티베트 내의 인구는 티베트인이 600만 명, 한족이 750만 명으로 티베트인들은 티베트에서조차 소수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도시의 상권은 대부분 한족이 장악했으며 티베트 문화와 언어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서부 대개발' 정책으로 티베트와 동투르키스탄 (현재의 신장-위구르 자치구), 그리고 내몽골을 포함한 수많은 지역과 자치구들을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칭짱철도 (칭하이(靑海)성 과 티베트장(藏)족자치구 수도인 라싸를 잇는 철도) 건설입니다. 이런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들은 수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유목민 강제정착정책으로 유목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의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중국어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어를 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불평등한 고용상황 때문에 티베트의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티베트어로 된 모든 언론과 방송매체는 중국 정부의 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티베트에는 표현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1392명의 양심수들이 정당한 재판과 의료 지원 등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감금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권리 역시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강들 중 대부분이 티베트에서 발원하는데,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어지는 댐들로 생태계는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무분별한 광물 채굴과 벌목으로 환경은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점령과 탄압 아래 수많은 티베트인이 히말라야를 넘어서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약 14만 명 정도의 티베트인이 전 세계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20명 가량의 티베트인이 이주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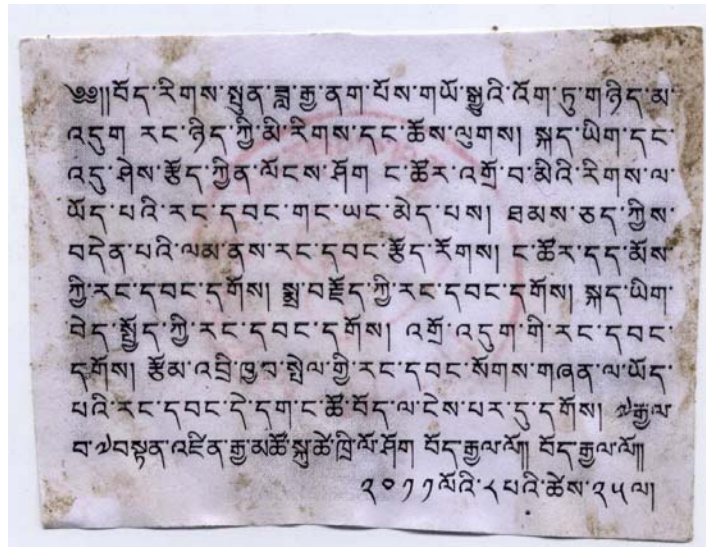
불타오르는 티베트? 2012년 짬빠 혁명!

2009년 2월 동티베트 캄 지역 아바의 키르티 사원에서 승려 타페이가 티베트의 자유를 외치며 분신을 시도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30명이 넘는 티베트인들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바로 며칠 전 3월 26 일에는 브릭스 정상회의를 위한 후진따오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뉴델리 인도 의회 앞에서 망명 티베트인이 역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금 티베트에서는 중국 정부의 점령에 항의하고 자유와 인권을 요구하는 분신과 수천 명이 넘는 인원이 벌이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포와 감금의 위협을 무릅쓰고 금지된 '티베트 깃발'을 거는 퍼포먼스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언론과 미디어의 접근을 차단하고, 티베트인의 이동을 제한하고, 외국인의 티베트 출입을 금지하고 사원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는 등 폭력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강경진압 과정 도중 티베트 시위대에게 발포를 하여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무차별적인 체포와 감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티베트 곳곳에는 무장 병력이 배치되어 사실상 계엄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의 잇따른 분신을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자살"이라고 왜곡하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독립을 향한 강력한 요구이며, 티베트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는 조명탄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승려들의 분신이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10대 학생, 주부, 농부 등 승려가 아닌 티베트인들의 분신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마추에서 분신한 20세 학생 체링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바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티베트인들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있다. 우리는 티베트를 위해 무언가 해야만 한다. 티베트의 자유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국 정부가 외신을 비롯한 언론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들이 속속 공유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위에서 공통적으로 외쳐지는 구호는 티베트의 독립과 달라이 라마의 귀환, 티베트어의 자유로운 사용, 종교 탄압을 멈추고 인권을 보장할 것, 자유롭게 말할 권리와 집회할 권리를 보장할 것 등입니다.



티베트인들과 전 세계 티베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2012년의 저항을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처럼 티베트의 "짬빠 혁명 Tsampa Revolution" 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950년 중국의 점령과 17개조 협정의 체결, 1959년 달라이 라마와 수만 명 티베트인들의 망명을 직접 보고 겪지 않은 세대. '점령된 땅 티베트'에서 태어났고 한족이주정책, 청장철도 건설 등 중국의 지배정책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성장했으며, 경제적·문화적으로 차별받아온 세대. 달라이 라마의 얼굴을 단 한번도 직접 본 적이 없는 세대. 그 새로운 세대가 지금 자유를, 인권을, 정체성과 존엄을 돌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미마쉐!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뵈겔로! (티베트에 승리를) 뵈랑젠! (티베트에 자유를)